준설토 매립 문제 해결 율촌 2산단개발 '속도'

11

내년까지 완료키로…사통팔달 교통에 기업들 '관심'

여수 율촌제2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해양수산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청은 "최근 해양수산부와 율촌제2산업 단지(율촌2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 단지에 준설토를 우선 투기하고, 내년까지 준설토 매립을 완료하는 내용을 담은 협의를 마 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율촌2단지 조성예정부지는 광양항 제3 준설토 투기장내에 있어 그동안 항만부지 위주로만 준설해 왔으며, 지난 10월부터 는 본격적인 준설에 나서고 있다.

준설토 매립이 완료되면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이 부지를 인수해 본격적인 산 업단지 조성에 나서게 된다.

촌2단지는 1단계 2.1㎢(64만평), 2단계 1. 69㎢(51만평)로 조성된다. 그동안 광양항 제3준설토 투기장 내 준

총 면적 3.79㎢(115만평)를 개발하는 율

설토 매립이 지연되면서 투기장 내에 있는 율촌2단지 개발도 지연돼 왔다.

제20385호

최근 해양수산부와 여수해양수산청이 본격적인 준설토 투기를 진행함에 따라 율 촌2단지 단지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 으로 기대된다.

율촌2단지는 광양항과 여수공항이 인 접하고 주변 국도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특히 바다와 접하고 있는 덕분에 부두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인근 여수국가산단 등 관련 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은 산단으 로 꼽힌다.

정복철 여수해양수산청장은 "2020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산업단지 공 급을 위해서는 율촌제2산단 조성이 시급 하다"며 "준설토 문제가 해결된 만큼 율 촌2산단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자원봉사자 모두가 작은 영웅입니다"

제1회 자원봉사대상 박근호씨…단체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자원봉사자 모두가 작은 영웅입니다" 여수 둔덕동에 거주하는 박근호(47)씨 는 수감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여수시가 올해 첫 마련한 '제1회 여수자 원봉사대상' 개인부문 대상을 받았다.

수중환경정화활동 등 20년 넘게 봉사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 곳곳에서 묵묵하게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상의 영광

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일 여수문화홀에서 자원봉사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개인에 이어 단체부분 대상도 선정했 으며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여수지대'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이 단체는 심장 병 어린이 47명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28년 동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성환 대표는 "시민들 도움으로 30 년 가까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민 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부문 금상은 영정 사진과 독거어 르신 목욕봉사 등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는 양방열(45)씨가 수상했으며, 은 상은 청소년 체험활동 행사주관 등 13년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지은(42) 씨가 받았다.

단체부문 금상은 자원재활용과 기부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가 게(대표 홍명의)가, 은상은 새터민 정착 지원 등에 나눔을 아끼지 않은 대한적십 자 봉사회 여수지구(대표 최상철)가 각 각 수상했다.

수상자와 단체에는 각각 대상 500만 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35년 동안 봉사활동을 이어 온 하성룡(50)씨 등 11명에게는 우수자 원봉사자 여수시장 표창이, GS칼텍스 (주) 여수공장 자원봉사대 등 7개 단체에 는 우수자원봉사단체 여수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한일고속,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1호 선박 건조 계약

2018년 완도~제주 운항

여수~제주 구간 여객선 운항사인 한일 고속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대선조선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제1호 선박 건조 계 약식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한일고속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기업 건 실도, 연안해운·연관산업 기여도, 성장잠재 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첫 번째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일고속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1 호선' 으로 신규 건조하는 카페리는 오는 2018년 완도~제주도 항로에 투입된다. 신규 건조 여객선은 길이 160m, 폭 24.8 m 규모의 1만9000t급 대형 카페리로, 여 객 1200여명이 승선 가능하고 자동차 150 대를 적재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운항 중인 '한일카훼리1호' 대비 운항시간이 12% 단축되며 여객 수송 능력 26% 증가 및 차량·화물 선적능력 36% 개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연안 해운 업계와 조선업계가 상생 관계를 만들어가 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 용하는 연안여객선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석정 한일고속 대표는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국내 조선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 겠다"고 밝혔다/여수=김창화기자 chkim@



초대형 유조건 이즈키호가 최근 여수 제2 원유부두에서 미국산 이글포드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GS칼텍스, 국내 원유사 첫 美 본토 원유 수입

원유 수입처 다변화

여수국가산단 내 유일한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지난해 12월 미국의 원유 금수조치 해제 이후 국내 정유사로는 최초로 미국 본토에서 채굴된 워유를 국내에 들여왔다.

5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미 국산 이글포드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 이즈키(IZKI)호가 지난 달 20일 여수 제2 원유부두에 접안한 뒤 하역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 7월 이글포드

원유를 구매했으며, 조만간 100만 배럴 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글포드 원유는 미국 텍사스주 이글 포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저유황 경질원유로 분류된다.

그동안 GS칼텍스를 비롯한 국내 정 유사에서 미국산 콘덴세이트나 알래스 카 원유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미국 본토에서 채굴된 원유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원유 금수조치 해제 이후 이번

이 처음이다. GS칼텍스는 지난 2014년 미국산 콘 덴세이트 40만 배럴과 알래스카 원유 80만 배럴을 도입했고, 지난 2015년에 는 각각 30만 배럴, 90만 배럴을 들여왔 다. 또 올해 3월에는 미국산 콘덴세이트

40만 배럴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원유 도입은 미국산 원유가 아 시아 국가로 수출되는 역외거래 가능 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

GS칼텍스가 미국산 원유를 구매한 이후 중국과 일본 정유사들도 미국산 원유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성별영향분석평가' 총리 표창 여수시, 기초자치단체 1위

여수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제11 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기관으 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 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 자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결과와 정책개선 실적 등에 대해 심사로 진행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여수시가 1위에 선정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실질적 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 에 힘썼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 전문기관 컨설턴트 활용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영식 여수시 여성가족과장은 "지속 적인 여성친화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 확 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의 영광을 안았다"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발 굴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ovita

/여수=김창화기자 chkim@



